

## 화행의 하위 분류 가능성에 대한 고찰

- '이유 말하기'를 중심으로 -

강창우(서울대)

### 0. 들어가는 말

Austin(1962)과 Searle(1969)이 개발한 언어의 행위적 특성에 대한 이론을 언어학에서 수용한 이후 '화행 Sprechakt'은 화용론의 가장 중심적인 개념이 되었다. 그러나 두 철학자는 대표적인 몇 가지 언어 행위 유형들을 이용하여 이론을 기술하였기 때문에, 자연 언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많은 화행들을 분류하고 기술하는 일은 언어학자들의 과제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Searle이 제안한 하위 분류 기준들만으로는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여러 가지 화행 유형들을 적절하게 분류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sup>1)</sup> 각 화행 유형별로 하위 분류의 기준을 찾는 시도가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Hindelang(1978)이 시도한 요구화행 AUFFORDERUNG의 하위 분류를 출발점으로 하여, Searle이 제시한 5가지 화행 유형 중 선언화행 Deklarativa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유형에 대한 하위 분류가 이어졌는데, Rolf(1983)는 단언화행 Repräsentativa을, Graffe(1990)는 위입화행 Kommissiva을, Marten-Cleef(1991)는 정표화행 Expressiva을 새로운 분류 기준을 이용하여 하위 분류하였다.<sup>2)</sup> 이와 같은 화행의 최상위 유형에 대한 하위 분류뿐만이 아니라 이보다 작은 단위에 대한 하위 분

- 
- 1) Searle은 화행의 유형 분류를 위해 12가지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의사소통목적 illokutionärer Zweck, 일치의 방향 Entsprechungsrichtung, 그리고 심리적 상태 psychologischer Zustand를 가장 중요한 분류 기준으로 보고 있다. 이 기준들을 이용하여 Searle은 화행을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Searle이 제시한 기준들로는 이 다섯 가지 대유형을 적절하게 하위 분류할 수 없다는 데 있다.
- 2) Rolf는 단언화행의 하위 분류에서 '선행되는 화행의 존재 유무'와 '믿음이나 지식의 강도' 등의 기준을 도입하였고, Hindelang은 요구화행의 일차적 하위 분류를 위해서 '제재 수단의 존재 여부'라는 기준을 도입하였다. 또한 Graffe는 위입화행의 하위 분류에서 화자의 통제 안에 있는 사태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화자의 영향권 밖에 있는 사태에 관한 것인지를 일차적인 분류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고 Marten-Cleef는 정표화행의 하위 분류에서 화자에게 우호적인 사태와 관련되는지 아니면 화자에게 우호적이지 못한 사태와 관련되는지를 일차적 분류 기준으로 삼았다.

류도 시도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Searle의 분류상으로는 지시화행의 하위 유형에 속하는 질문화행 Fragehandlungen에 대한 Hindelang(1981)의 하위 분류와 Searle의 분류상으로는 단언화행이나 정표화행으로 분류가 되는 평가화행 BEWERTEN에 대한 Zillig(1982)의 하위분류이다. 또한 단언화행의 하위 유형에 속하는 ‘이유 말하기 begründende Sprechhandlungen<sup>3)</sup>에 대한 하위 분류도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시도되었다.

이런 하위분류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서, Searle이 제안한 12가지 화행 분류의 기준들은 각 화행 유형의 하위 분류를 위한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화행 유형의 하위분류를 위해서는 각 화행 유형의 특성을 반영하는 분류 기준들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준들을 어떻게 찾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화행의 최상위 유형들의 하위 분류에서는 각 화행 유형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면서도 언어 직관에서 벗어나지 않는 분류 기준을 찾는 것이 연구의 핵심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렇게 찾아낸 분류 기준들이 항상 간주관성 Intersubjektivität을 갖는 것은 아니다. 선행 연구자들이 제안한 분류 기준과 그에 따른 하위 분류가 빈번하게 비판을 받고 수정된 대표적인 예가 ‘이유 말하기’의 하위 분류이다. 이 화행 유형에는 ‘설명하기 ERKLÄREN’, ‘이유대기 BEGRÜNDEN’,<sup>4)</sup> ‘정당화하기 RECHTFERTIGEN’, ‘논증하기 ARGUMENTIEREN’와 같은 화행이 속하는데, 학자마다 이 유형에 속하는 화행들과 이 화행들의 상위 유형을 다르게 규정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유 말하기’의 하위 분류에 대한 연구들을 고찰하고, ‘이유 말하기’를 하위 분류할 수 있는 간주관적 기준을 찾아 이 화행의 하위 유형들을 적절하게 기술하려고 한다.

3) 이 화행 유형의 하위 유형들에 대한 상위 명칭으로는 이밖에도 Argumentieren/Argumentation, Begründen/Begründung, Erklären/Erklärung 등이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Kang(1996)에서 사용한 이 명칭을 사용한다.

4) 여기서는 ‘이유 말하기’와 ‘이유대기 BEGRÜNDEN’를 서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이유 말하기 begründende Sprechhandlungen’는 ‘설명하기’, ‘논증하기’, ‘정당화하기’와 ‘이유대기’를 포괄하는 상위 유형의 명칭으로 사용하며, ‘이유대기’는 이 상위 유형에 속하는 한 가지 하위 유형에 대한 명칭으로 사용한다.

## 1. '이유 말하기'의 하위 분류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그 문제점

'이유 말하기'의 하위 분류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지만, 통일된 견해는 찾아보기 힘들다. 우선 Völzing(1979)은 그의 논증이론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유대기 Begründungen'와 '설명하기 Erklärungen'를 서로 구분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이유 대기'는 행동의 이유나 동기를 말하는 것이고, '설명하기'는 행위의 의도나 목표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vgl. S. 15). Völzing에 따르면, 이 두 가지 화행의 대상은 '행동 Handlung'이며, 내용은 '이유/동기'나 '의도/목표'이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설명하기'의 경우 우리의 언어 직관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가 의문이며, '설명하다'라는 화행 동사를 이용해 기술되는 언어 행위들 가운데 Völzing의 분류 기준으로 볼 때 '설명하기'에 속하지 않는 언어적 행위들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한편 Öhlschläger(1979)는 Völzing이 분류한 두 가지 화행 이외에 '논증하기 Argumentation'를 포함하여 분류하였다. 이 분류에서는 화행의 대상 유형이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논증하기'의 대상은 문장이나 주장의 참과 거짓이고, '이유대기'의 대상은 행동이며, '설명하기'의 대상은 사건이라고 했다(vgl. S. 42ff.). 그런데 논증이론에 따르면 문장이나 주장의 참과 거짓도 그것이 쟁점화 되지 않으면 논증의 대상이 되지 않고 '설명하기'의 대상이 되는데,<sup>5)</sup> 이 점이 Öhlschläger의 설명에는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다.

Wunderlich(1980a)는 '이유대기', '설명하기', '정당화하기'를 분류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중에 '이유대기'를 상위의 화행으로 보았다. 그는 이 화행들을 대상과 내용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설명하기'는 사태들간의 관계나 어떤 생각을 갖게 된 이유, 그리고 행동의 원인을 말하는 것이며(vgl. S. 61ff.), '정당화하기'는 화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vgl. S. 64). 그렇지만 '이유대기'를 '설명하기'와 '정당화하기'의 상위 화행으로 보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데, 이런 사실은 '설명하다'와 '정당화하다' 대신에 항상 '이유를 대다'라는 수행동사를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서 드러난다.

Wunderlich(1980b)는 또 다른 글에서 화행의 대상과 논란성 Strittigkeit 존재 여

5) 여기에 대해서는 Bak/Kang/Waßner(1992: 74)를 참조하시오.

부를 분류의 기준으로 삼아, 사실 Tatsache을 ‘설명하기’의 대상으로 보았으며, ‘이유대기’는 화자의 생각이나 입장,<sup>6)</sup> 가치 판단, 요구, 계획, 제안, 조언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다. 그리고 ‘논증하기’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생각을 대상으로 삼는다고 했다(vgl. S. 116f.). 이 분류에서는 논란성을 ‘논증하기’의 전제로 보았다는 점에서 ‘논증하기’의 화행적 특성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된다.<sup>7)</sup>

‘이유 말하기’를 가장 세분화한 것은 Ehlich/Rehbein(1986)이다. 이들은 이 화행을 대상 유형과 청자와의 관련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이용하여 여섯 가지 하위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청자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서 ‘이유대기’와 ‘정당화하기’를 구분하였으며, ‘이유대기’는 화행의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였다.

- 1) 화자의 과거 행동에 대한 이유대기
- 2) 화자의 미래 행동에 대한 의도의 이유대기
- 3) 청자에 대한 화자의 요구에 대한 이유대기
- 4) 자신의 주장에 대한 이유 대기

또한 ‘정당화하기’는 화자의 과거 행동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미래 행동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이들을 각각 ‘정당화하기 I’과 ‘정당화하기 II’라고 불렀다. 이 분류는 대상 유형을 세분화함으로써 여러 가지 하위 유형들을 분류해냈다는 점에서는 이전의 분류들보다 체계적인 면이 있으나, 선행 연구에서 ‘설명하기’와 ‘논증하기’의 대상으로 보았던 것들이 이 분류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유 말하기’의 하위 분류로는 부족한 점이 있다.

Klein(1987)은 ‘추론에 기반하는 언어행위 konklusive Sprechhandlungen’에 대한 연구에서 언어행위의 대상과 그 언어행위에서 주제화되는 것에 따라 ‘설명하기’, ‘이

6) 여기서 ‘생각이나 입장’이라는 표현은 독일어 표현 ‘Einstellung’을 옮긴 것이다. 이 개념에 대한 심리학적 정의에 대해서는 Kang(1996: 146, 주석 170)을 참고하십시오.

7) Toulmin(1958)이나 Öhlschlänger(1979)의 논증이론에서는 논란성을 논증의 전제로 보고 있지 않다. 그러나 ‘논증하다’라는 수행 동사로 기술될 수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 Bak/Kang/Waßner(1992)가 제안한 것처럼 논란성의 존재를 논증 행위의 전제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본다.

유대기', 그리고 '정당화하기'를 구분하였다. 그에 따르면 '설명하기'는 사태가 발생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며, '정당화하기'는 사태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나 그 사태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최소한 부정적이지 않은 평가가 내려지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리고 '이유대기'는 발화의 명제 내용 propositionaler Gehalt 이 참이라는 주장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는다. 여기서는 언어행위의 대상과 내용을 기준으로 사용하여 설명력 있게 분류하였으나, 다만 '이유대기'를 진리치와 관계하는 것으로 한정된 것은 '이유를 대다'라는 수행 동사의 사용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Bak/Kang/Waßner(1992)의 연구인데, 여기서는 '이유 말하기'의 순서의존적 sequenzabhängig인 특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sup>8)</sup> 이 논문에서는 '이유 말하기'의 하위 유형에 속하는 '논증하기', '설명하기', '이유대기', '정당화하기'는 대화의 세 번째 발화 순서(3. Zug)에서 실현되는 것이 원형적인 특성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논증하기'는 첫 번째 발화순서(1. Zug)에서 실행된 언어적 행위의 정당성이나 명제 내용의 진리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두 번째 발화순서(2. Zug)에서 나타날 때 실행되는 복합 화행 komplexe Sprechhandlung이며, 이것은 '이유대기'와 '정당화하기'와 같은 개별 화행에 의해서 실현된다고 했다. 또 '설명하기'는 두 번째 발화순서에서 '문의하기 NACHFRAGEN'와 같은 화행이 수행될 때 실현된다고 보았다. 이런 설명은 '이유 말하기'의 하위 유형 분류로서는 충분하지 못하지만, 이 화행들이 갖는 순서의존적 특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유 말하기'의 하위 유형들은 학자마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준을 사용하여 서로 다르게 분류하고 있다.

- 1) 대상의 유형
- 2) 대상의 내용
- 3) 논란성 여부
- 4) 선행하는 화행의 유형

이 중 '대상의 유형'이라는 기준은 거의 모든 하위 분류 모델에서 사용되지만, 각

8) '이유대기'의 순서의존적 특성에 대해서는 Rolf(1983: 85)와 Ehlich/Rehbein(1986: 100f.)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순서의존적 특성은 '설명하기', '정당화하기', 그리고 '논증하기'에서도 나타난다.

모델에서 사용하는 구체적인 대상 유형은 서로 다르다. 즉, 각 모델에서는 ‘이유 말하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대상 유형들 중 서로 다른 일부만 사용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유 말하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 대상들과 ‘이유 말하기’의 하위 유형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 2. ‘이유 말하기’의 대상 유형

기존의 연구에서 수행된 ‘이유 말하기’의 하위 분류에서는 언어 행위의 대상 유형이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무엇을 설명하는지, 무엇이 이유를 대는지, 무엇을 정당화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논증하는지에 따라 ‘이유 말하기’의 하위 유형이 분류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언급된 대상 유형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사실 (Wunderlich 1980b)
- 2) 사건 (Öhlschläger 1979)
- 3) 자연에서의 변화 과정 (Wunderlich 1980a)
- 4) 행동 (Ehlich/Rehbein 1986; Klein 1987; Öhlschläger 1979; Völzing 1979; Wunderlich 1980a)
- 5) 행동 유보 (Klein 1987)
- 6) 행동의 결심 (Wunderlich 1980a)
- 7) 의도 (Völzing 1979)
- 8) 심리 상태 (Klein 1987)
- 9) 생각이나 입장 (Klein 1987; Wunderlich 1980a, 1980b)
- 10) 주장의 진리치 (Öhlschläger 1979)
- 11) 단언 (Ehlich/Rehbein 1986)

그런데 이 대상의 유형들이 ‘이유 말하기’의 하위 분류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면, 이런 대상들의 어떤 특성이 그 과정에서 관여적인지를 먼저 밝혀야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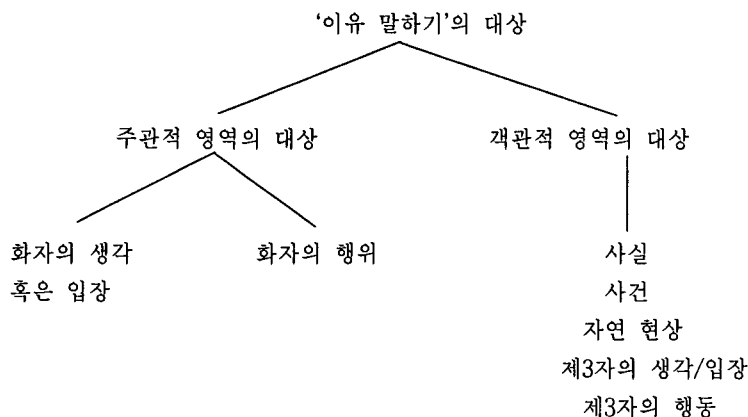
것이다. 이때 먼저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것은 대상과 화자의 관계일 것이다. 즉, 화자의 영향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화자가 책임져야 할 필요가 없는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사건들 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설명하는 것과, 화자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행위 조건 Handlungsbedingung을 구성하고, 또 서로 다른 의사소통 목표 kommunikativer Zweck를 가질 것이다. 예를 들어, 화자가 책임져야 할 필요가 없는 일과 관련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화자를 비난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런 일은 정당화할 필요도 없다. 그렇지만, 화자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일과 관련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화자를 비난할 수 있으며,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화자가 그 일에 대하여 이유를 대거나 정당화해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서로 대비되는 대상 유형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 묻기 테스트를 통해서도 구별이 된다.

- (1) Sp1: Daniel kommt heute bestimmt nicht.  
 Sp2: Warum glaubst du das?  
 Sp1: ?Ich weiß es nicht.
- (2) Sp1: Heute ist der Prinzipalmarkt gesperrt.  
 Sp2: Wieso?  
 Sp1: Ich weiß es nicht.

(1)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화자의 영향이나 책임 하에 있는 일과 관련해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경우라면 “Ich weiß es nicht.”라고 대답할 수 없으며, 그렇게 대답한다면 Grice의 의미에서 매우 비협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된다. 그렇지만 (2)의 경우에서와 같이 화자의 영향이나 책임 하에 있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Ich weiß es nicht.”라고 대답할 수 있으며, 이런 대답이 비협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은 없다.

이와 같이 대상이 화자가 통제할 수 있고 따라서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화자가 통제할 수 없으며 따라서 책임져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인지는 ‘이유 말하기’의 하위 분류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유 말하기’의 대상을 ‘(화자의) 주관적 영역에 있는 대상들’과 ‘객관적 영역에 있는 대상들’로 나눌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대상의 유형들을 이와 같은 두 가지 영

역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행동’과 ‘행동 유보’는 먼저 ‘행위’라는 개념으로 단순화하였고, 이 행위는 화자의 행위와 제 3자의 행위로 구분하였다. 그 이유는 제 3자의 행위는 주관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위에서 사용했던 이유 묻기 테스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3) Sp1: Wo ist Peter?

Sp2: Er ist nach Hause gegangen.

Sp1: Wieso denn?

Sp2: Das weiß ich nicht.

그리고 ‘행동의 결심’, ‘의도’, ‘심리 상태’와 같이 화자의 심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은 모두 ‘화자의 생각 혹은 입장’으로 통합하였는데, 이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던 화자의 영향과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것들은 동일한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장의 진리치’ 및 ‘단언’과 관련된 ‘이유 말하기’는 화자가 왜 그러한 명제가 참 혹은 거짓이라고 믿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결국 ‘화자의 생각 혹은 입장’으로 통합될 수 있다.<sup>9)</sup>

이와 같은 분류를 통하여 이유를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상에 대한 ‘이유



말하기와 그런 책임이 없는 대상에 대한 '이유 말하기'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일상적인 언어사용에서는 수행동사인 '설명하다'와 '이유를 대다'가 대상 유형과 관련하여 뚜렷하게 구분되지는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객관적인 영역에 속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이유를 대다' 보다는 '설명하다'가 더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에서도 객관적 영역에 속하는 대상에 대한 '이유 말하기'는 '설명하기'로 보았고,<sup>10)</sup> 주관적 영역에 속하는 대상에 대한 '이유 말하기'는 '이유 대기'로 보았다.<sup>11)</sup>

한편 객관적 영역에 속하는 대상과 관련해서는 '정당화하기'와 '논증하기'가 실행되지 않는다. 이것은 다음 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4) a. Er versucht, den Autounfall zu rechtfertigen.
- b. Er versucht, sein schlechtes Benehmen auf der Party zu rechtfertigen.
- (5) a. Er argumentiert für den Anstieg des Dollarkurses in der letzten Woche.
- b. Er argumentiert für seine Behauptung, dass die Mehrwertsteuer erhöht werden soll.

또한 '정당화하기'와 '논증하기'는 정당성이나 진리치가 의심을 받거나 의심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수행되는 언어 행위이다. 이것은 '논증하기'가 수행되기 위한 전제에 대해서 언급한 Bak/Kang/Waßner(1992)의 설명에서 잘 나타난다.

['논증하기'는] 화자 1이 화행 SA0을 통해 특정한 생각이나 입장 E를 표현하고, 화자 2는 화행 SA\*을 통해서 E와 경쟁관계에 있는 생각이나 입장, 특히 반대 생각이나 입장 GE를 나타내거나 이런 생각이나 입장을 갖고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는 상황을 전제한다. (S. 74)

따라서 '정당화하기'와 '논증하기'를 '설명하기'와 '이유대기'와 구분하기 위해서

9) 논란성이 나타나는 '주장의 진리치'에 대한 '이유 말하기'는 독립적인 화행을 구성한다는 것은 4장에서 밝히겠다.

10) Klein(1987), Öhlschläger(1979), Wunderlich(1980b) 참조.

11) Ehlich/Rehbein(1986), Klein(1987), Öhlschläger(1979), Völzing(1979), Wunderlich (1980b) 참조.

Wunderlich(1980b)가 제안한 ‘논란성 Strittigkeit’이란 개념을 분류의 또 다른 기준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 하위 분류 기준으로서의 ‘논란성’ 개념

‘이유 말하기’의 하위 분류를 위해 ‘논란성’이란 개념을 도입한 것은 Wunderlich(1980b)이지만, Ehlich/Rehbein(1986)도 ‘청자의 고유 영역과의 접촉’이란 기준을 도입하여 ‘정당화하기’를 ‘이유대기’와 구분하였다. Wunderlich는 원래 ‘이유대기’와 ‘논증하기’를 구분하기 위하여 ‘논란성’이란 개념을 도입하였지만, 여기서는 Ehlich/Rehbein의 개념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 이 개념을 이해하기로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의 ‘논란성’은 화자가 옳거나 참이라고 믿는 것에 대해 청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결국 논란성은 주관적 영역에 있는 대상들, 즉 화자의 생각이나 입장, 혹은 화자의 행위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객관적인 영역에 속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논란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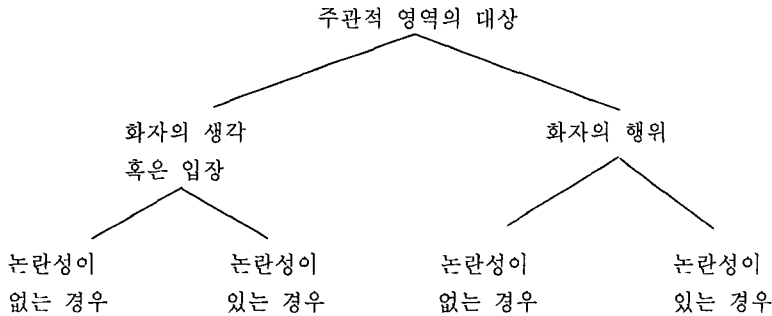
- (6) Sp1: Peter kann heute nicht kommen.  
 Sp2: a. Das glaube ich nicht.  
 b. Wieso kommt er wieder nicht?

여기서 Sp1의 발화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으로서 발화의 대상은 객관적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논란성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6a)의 발화에서와 같이 Sp2가 Sp1의 발화를 ‘전달하기’가 아니라 ‘주장하기’로 받아들여서 그 주장의 진리치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논란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Sp1가 한 주장의 참과 거짓이 되고, 따라서 이어지는 Sp1의 반응은 주관적 영역에 속하는 대상에 대한 ‘이유 말하기’나 아니면 ‘증명하기’가 수행될 수 있다.<sup>12)</sup> 그러나 Sp2가 (6b)와 같이 반응함으로써, Sp1의 발화 내용인 ‘페터가 오늘

12)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증명하기’도 ‘이유 말하기’와 많은 유사성을 갖는다. 그렇지만 ‘증

오지 않는 것'을 비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논란성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 즉 Sp1는 Sp2가 페터에게 한 비난에 대해 페터의 행동을 정당화할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이다. 다만 Sp1는 페터의 입장에 서서 페터를 변호해 줄 수는 있다.<sup>13)</sup>

이렇게 볼 때, 결국 화자의 통제하에 있지 않으며 따라서 화자가 책임을 져야 할 필요도 없는 객관적인 영역에 속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논란성이 발생하지 않으며, 오직 주관적 영역에 속하는 대상과 관련해서만 논란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sup>14)</sup> 따라서 주관적인 영역에 속하는 대상을 논란성의 발생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이상에서는 대상의 유형과 논란성 여부를 '이유 말하기'의 하위 분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았다. 1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종래의 연구에서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을 적절히 고려한 분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제 이 두 가지 기준을 이용하여 '이유 말하기'의 하위 유형들을 적절히 분류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이때 특히 고려해야 할 점은 이 기준들을 사용하여 분류한 하위 유형들이 서로 독립적인 의사소통 목적을 갖는지, 그리고 '이유 말하기'에 속하는 언어 행위 유형들이 그

명하기가 '이유 말하기'의 하위 유형인지는 다른 연구를 통해서 밝혀야 할 것이다.

13) 이 점에서 있어서는 '변호하기'도 '이유 말하기'와 유사성을 갖는다. '변호하기'가 '이유 말하기'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다른 연구를 통해서 밝혀야 할 것이다.

14) 물론 객관적인 영역에 속하는 대상이라도 화자가 그 일에 영향을 끼쳤고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라면, 그 일은 주관적인 영역의 대상으로 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화자가 그 일을 정당화해야 필요가 발생한다.

행위 특성상의 차이에 따라 적절하게 분류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 4. '이유 말하기'의 하위 유형 분류

화행을 기술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의사소통 목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유 말하기'는 논란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수행되는 유형과 논란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수행되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논란성이 존재하는 경우의 의사소통 목적은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 혹은 행동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것이고, 논란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의사소통 목적은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의 이유나 원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언어적 행위는 대개 '정당화하기'라고 하는데,<sup>15)</sup> '정당화하기'의 대상은 논란의 대상이 되는 행위나 생각 혹은 입장이다. 특히 화자가 갖고 있는 믿음의 정당성, 즉 주장이 옳음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수행되는 '이유 말하기'는 독립적인 화행을 이루는데, 이것은 흔히 '논증하기'라고 부른다.<sup>16)</sup>

논란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이유 말하기'는 대상의 유형에 따라 '설명하기'와 '이유대기'로 구분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어떤 대상에 대한 '이유 말하기'가 '설명하기'이고, 어떤 대상에 대한 것이 '이유대기'인지에 대해서 일치되는 견해가 없다. Heringer u.a.(1977: 275)와 Öhlschläger(1979: 42ff.)에 따르면 사건은 '설명하기'의 대상이고 행위는 '이유대기'의 대상이다. 그러나 Wunderlich(1980b: 116f.)에 따르면, 사실이 '설명하기'의 대상이고 생각이나 입장은 '이유대기'의 대상이다. 또한 Ehlich/Rehbein(1986: 97ff.)은 행위를 '이유대기'의 대상으로 보았고, Kopperschmidt(1989: 73)는 '설명하기'의 대상은 사건이라고 보았다. 한편 Meyer(1983)는 "Warum ist es so?"에 대한 대답은 '설명하기'이고, "Warum sagst du das?"나 "Woher

15) '정당화하기'에 대해서는 Ehlich/Rehbein(1986: 118f.), Fritz/Hundsnurscher(1975: 84), Klein(1987: 23ff.), Kopperschmidt(1989: 73), Rehbein(1972: 310ff.), Wunderlich(1980a: 64) 등을 참고하시오.

16) '논증하기'에 대해서는 Bak/Kang/Waßner(1992: 74ff.), Beasley(1980: 2), Eemeren/Grootendorst(1982: 4f.), Heringer u.a. (1977: 260), Kopperschmidt(1989: 14f.), Öhlschläger(1979: 42ff.), Wunderlich(1980b: 116f.) 등을 참고하시오.

weißt du das?”에 대한 대답은 ‘이유대기’라고 보았다.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에서는 ‘설명하기’와 ‘이유대기’의 대상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며 화자의 행위와 제 3자의 행위를 구분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객관적 영역에 속하는 대상에 대한 ‘이유 말하기’는 ‘설명하기’로 보고 주관적 영역에 속하는 대상에 대한 ‘이유 말하기’는 ‘이유대기’로 보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설명하기’는 객관적 영역에 속하는 대상에 대한 ‘이유 말하기’로, ‘이유대기’는 주관적 영역에 속하며 논란성이 개입되지 않는 대상에 대한 ‘이유 말하기’로 보겠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유 말하기’를 하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의 유형	주관적 영역			객관적 영역
	생각이나 입장		행위	
	진리치	정당성		
[+ 논란성]	논증하기	정당화하기		-
[- 논란성]	이유대기			설명하기

이 하위 분류를 바탕으로 ‘이유 말하기’의 각 하위 유형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sup>17)</sup>

설명하기: 객관적 영역에 속하는 대상의 발생 이유나 원인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 실행되는 언어 행위

이유대기: 주관적 영역에 속하며 논란성이 개입되지 않는 대상의 발생 이유에

17) 여기에 설명된 특성을 바탕으로 ‘이유 말하기’의 각 하위 유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조건을 기술할 수 있다. 먼저 ‘이유 말하기’의 명제적 내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예비조건은 각 하위 유형마다 다른데, 선행하는 화자의 발화에서 언급된 대상 유형과 청자의 반응으로 논란성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각 하위 유형의 예비조건에 기술된다. 성실성 조건은 발화의 내용이 참이라는 것과, 그 발화의 내용이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의 발생 이유나 원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거나(‘설명하기’와 ‘이유대기’의 경우) 논란이 되고 있는 대상을 지원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정당화하기’와 ‘논증하기’의 경우). 그리고 본질적 조건은 여기에 기술된 각 유형의 특성에 잘 반영되어 있다.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 실행되는 언어 행위

정당화하기: 화자의 행위나 생각 혹은 입장의 정당성에 대해 이 의가 제기되거나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것의 정당성을 지원하기 위해 실행되는 언어 행위

논증하기: 화자의 주장이나 믿음의 옳음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거나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것의 옳음을 지원하기 위해 실행되는 언어 행위

## 5. 맺는 말

이 논문에서는 ‘이유 말하기’의 하위 유형 분류를 시도하였다. 이런 시도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나, 하위 유형들의 언어 행위적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는 분류는 찾기 어려웠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분류 기준의 설정이 적절하지 못한 데 있다고 판단된다. 기존의 연구에서 분류 기준으로 사용한 ‘대상의 유형’이 ‘이유 말하기’라는 언어 행위가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모든 유형을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또 논란성 여부가 중요한 분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많은 분류 모델에서는 이 기준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지양하기 위해 먼저 이 언어 행위의 대상 유형을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이 언어 행위의 하위 유형들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이 대상 유형을 하위 분류하였다. 또한 논란성 여부를 하위 분류의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하여 ‘정당화하기’와 ‘논증하기’를 다른 하위 유형들과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분류한 네 가지 하위 유형 이외에 ‘이유 말하기’의 하위 유형에 속하는 다른 언어 행위가 있는지는 앞으로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변호하기’, ‘증명하기’, ‘사과하기’는 ‘이유 말하기’와 유사한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이 유형들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18)</sup> 그러나 이 유형들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앞으로의 연구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여기서는 이 연구 과정에서 봉착했던 몇 가지 원론적인 문제들을 간단히 언급하

18) ‘사과하기 ENTSCHULDIGEN’에 대한 연구는 Rehbein(1972)을 참고하시오. 이 논문에서는 ‘사과하기’를 ‘정당화하기’의 한 하위 유형으로 보았다.

고 글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이 연구 과정에서 부딪혔던 가장 큰 문제점은 화행의 하위 분류에서 자주 당면하게 되는 문제로서, 한 가지 화행 유형을 얼마나 세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었다. Searle이 제안한 화행의 분류 기준은 그가 분류한 다섯 가지 대분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지만, 그 아래 층위의 하위 분류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화행 유형마다 다른 기준을 설정하여 하위 분류하게 되는데, '이유 말하기'와 같이 비교적 작은 단위의 화행 유형을 하위 분류하는 과정에서는 무엇을 분류 기준으로 하여 얼마나 상세하게 하위 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대상의 유형을 하위 분류의 기준으로 삼을 때, 객관적 영역에 속하는 대상들과 관계되는 '이유 말하기'는 모두 '설명하기'라는 한 가지 하위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객관적 영역에 속하는 대상을 더 세분하고 그에 따라 '이유 말하기'도 더 세분해서 하위 분류할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이것은 '이유 말하기'의 하위 분류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많은 화행의 하위 분류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점이다.<sup>19)</sup>

예를 들어, 질문 화행의 경우에는 다양한 기준을 이용하여 매우 상세하게 하위 분류되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질문'의 하위 유형들이 실제로 각각 독립적인 화행을 이룬다고 볼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 분류가 '질문'의 하위 유형들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sup>20)</sup> 또한 Franke(1990: 50)는 고수화행 INSISTIEREN의 하위 분류에서 최초 화행이 '비대칭적 부탁'인 경우의 고수화행은 '간청하기 FLEHEN'라고 보았지만, 최초 화행이 비구속적 요구인 경우의 고수화행은 모두 '독촉하기 DRÄNGEN'라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최초 화행의 유형이 고수화행의 행위 조건을 구성한다고

19) Rolf(1983)도 단언화행의 하위 분류에 대한 연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vgl. S. 130f.).

20) Hindelang(1981)은 '질문'의 하위 분류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 대화연속체의 어느 위치에서 실현되는가?
- 문제 중심적인가 아니면 파트너 중심적인가?
- 대화 참여자 중 한 사람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두 사람의 공통적인 문제인가?
- 질문의 내용이 이론적인 것인가 아니면 실제적인 것인가?

이런 기준들을 적용하여 Hindelang은 질문 화행을 '정보요구 질문', '설명요구 질문', '이유요구 질문', '충고요구 질문', '지도요구 질문', '협력요구 질문' 등으로 하위 분류하고 있다.

보았으므로, 그의 이론에 따르면 어떤 비구속적 요구가 최초 화행에서 실행되느냐에 따라 세 번째 대화순서에서는 다른 종류의 고수화행이 실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대화연속체상의 세 번째 대화순서에서 실행되는 화행의 구성조건에 최초 화행의 유형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포함된다면 어떤 형태로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연구 결과로 제시된 다양한 화행의 하위 분류들을 보면, 하위 분류의 기준과 상세화 정도에 대한 공통적인 원칙이 보이지 않는다. 이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언어적 행위의 최소 단위에 대한 고찰이 전제된다. 즉 한 가지 화행 유형의 하위 유형들의 집합 ( $SA_1, SA_2, \dots, SA_n$ )은 어떤 조건하에서 의사소통기능상 더 이상 하위분류 할 수 없는가 라는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이 문제는 결국 한 가지 화행 유형을 화행의 성격을 잃지 않으면서 하위 분류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인가라는 문제와 같다. ‘이유 말하기’의 하위 분류가 그 상세화 정도에 있어서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를 판단할 수 있기 위해서도 이 문제에 대한 설득력 있는 연구 결과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창우 (1997): “화행과 언어적 단위의 관계에 대하여. 독일어 인과문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4집, 63-88.
- 강창우 (1998): “인과문과 상관문의 의미 관계”, 독일문학 65집, 375-397.
- Austin, John L. (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Oxford.
- Bak, Yong-Ik/Kang, Chang-Uh/Waßner, Ulrich Hermann (1992): „Illokutions-hierarchie im argumentativen Dialog.“ In: Münstersches Logbuch zur Linguistik 2/1992, 71-85.
- Beasley, Gregg (1981): “Argumentative Interaktion. Zur Grammatik dialogischen Argumentierens”. In: Münstersches Logbuch zur Linguistik 5, 1-31.
- Eemeren, Frans H. van/Grootendorst, Rob (1982): “The Speech Acts of Arguing and Convincing in Externalized Discussions”. In: *Journal of Pragmatics* 6, 1-24.
- Ehlich, Konrad/Rehbein, Jochen (1986): *Muster und Institution. Untersuchung zur*



- schulischen Kommunikation. Tübingen.
- Franke, Wilhelm (1990): Elementare Dialogstrukturen. Darstellung, Analyse, Diskussion. Tübingen.
- Fritz, Gerd/Hundsnurscher, Franz (1975): "Sprechaktsequenzen. Überlegungen zur Vorwurf/Rechtfertigungs-Interaktion". In: Der Deutschunterricht 27/2, 81-103.
- Graffe, Jürgen (1990): SICH FESTLEGEN UND VERPFLICHTEN: Die Untertypen kommissiver Sprechakte und ihre sprachlichen Realisierungsformen. Münster/New York.
- Heringer, Hans Jürgen/Öhlschläger, Günther/Strecker, Bruno/Wimmer, Rainer (1977): Einführung in die Praktische Semantik. Heidelberg.
- Hindelang, Götz (1978): Auffordern. Die Untertypen des Aufforderns und ihre sprachlichen Realisierungsformen. Göppingen.
- Hindelang, Götz (1981): "Zur Klassifikation der Fragehandlungen". In: Hindelang, Götz/Zillig, Werner (Hrsg.): Sprache. Verstehen und Handeln. Bd. 2. Tübingen, 215-226.
- Kang, Chang-Uh (1996): Die sogenannten Kausalsätze des Deutschen. Eine Untersuchung erklärenden, begründenden, rechtfertigenden und argumentierenden Sprechens. Münster/New York. (= Internationale Hochschulschriften, Bd. 197)
- Klein, Josef (1987): Die konklusiven Sprechhandlungen. Studien zur Pragmatik, Semantik, Syntax und Lexikon von BEGRÜNDEN, ERKLÄREN-WARUM, FOLGERN und RECHTFERTIGEN. Tübingen.
- Kopperschmidt, Josef (1989): Methodik der Argumentationsanalyse. Stuttgart-Bad Cannstatt.
- Marten-Cleef, Susanne (1991): GEFÜHLE AUSDRÜCKEN. Die expressiven Sprechakte. Göppingen.
- Meyer, Paul Georg (1983): Sprachliches Handeln ohne Sprechsituation. Tübingen.
- Öhlschläger, Günther (1979): Linguistische Überlegungen zu einer Theorie der Argumentation. Tübingen.
- Rehbein, Jochen (1972): "Rechtfertigungen und Entschuldigungen". In: Wunderlich, Dieter (Hrsg.): Linguistische Pragmatik. Frankfurt a.M., 288-317.
- Rolf, Eckard (1983): Sprachliche Informationshandlungen. Göppingen.
- Searle, John Rogers (1969): Speech Acts.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 Language. Cambridge u.a.
- Toulmin, Stephen E. (1958): The uses of argument. Cambridge.
- Völzing, Paul-Ludwig (1979): Begründen, Erklären, Argumentieren: Modelle und Materialien zu einer Theorie der Metakommunikation. Heidelberg.
- Wunderlich, Dieter (1980a): Arbeitsbuch Semantik. Königstein.
- Wunderlich, Dieter (1980b): "Pro und Kontra". In: Zeitschrift für Literaturwissenschaft und Linguistik 10, Heft 38/39: Argumentation, 109-128.
- Zillig, Werner (1982): Bewerten. Sprechakttypen der bewertenden Rede. Tübingen.

## Zusammenfass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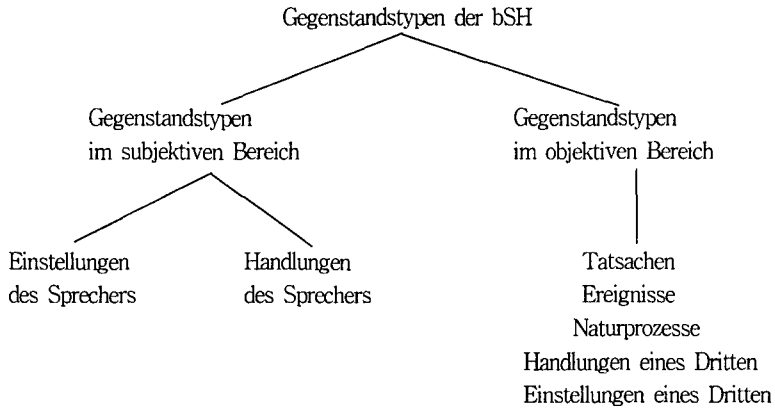
### Zur Möglichkeit der Unterklassifikation von Sprechakttypen.

Am Beispiel der begründenden Sprechhandlungen

Kang, Chang-Uh (Seoul Nat'l Univ.)

Die Unterklassifikation von Sprechakttypen stellt einen wichtigen Forschungsgegenstand der Sprechakttheorie dar. Mit den Kriterien, die Searle (1969) vorgeschlagen hat, können zwar die fünf Haupttypen der Sprechakte voneinander unterschieden werden, aber für deren Unterklassifikation müssen weitere Kriterien herangezogen werden, und zwar solche, mit denen die Untertypen des zu unterklassifizierenden Sprechakttyps deren Handlungscharakter gemäß klassifiziert werden können. Es ist aber nicht einfach festzustellen, was man als Kriterien für die Unterklassifikation eines bestimmten Sprechakttyps nehmen soll.

In der vorliegenden Arbeit wird versucht, die für die Unterklassifikation der sogenannten begründenden Sprechhandlungen (= bSH) wie ERKLÄREN-WARUM, BEGRÜNDEN, RECHTFERTIGEN und ARGUMENTIEREN angemessenen Kriterien festzustellen und mit diesen die vier Untertypen der bSH zu klassifizieren. Dabei werden zwei Kriterien herangezogen: nämlich, Gegenstandstyp und Strittigkeit. Je nachdem, um welchen Gegenstandstyp es bei der bSH geht und ob Strittigkeit vorliegt, wird ein anderer Untertyp der bSH vollzogen. Die Gegenstandstypen der bSH sind wie folgt darzustellen:



Strittigkeit kann nur in Bezug auf die Gegenstandstypen im subjektiven Bereich entstehen, und zwar in Bezug auf die Richtigkeit der Handlungen und Einstellungen und die Wahrheit der Einstellungen des Sprechers. Mit den beiden Kriterien 'Gegenstandstyp' und 'Strittigkeit' können die Untertypen der bSH wie folgt klassifiziert werden:

Gegenstands- typ	im subjektiven Bereich			im objektiven Bereich
	Einstellungen		Handlungen	
	Wahrheit	Richtigkeit		
[+ Strittigkeit]	ARGUMENTIEREN	RECHTFERTIGEN		-
[- Strittigkeit]	BEGRÜNDEN			ERKLÄREN-WARUM

[검색어] 화행, 하위분류, “이유 말하기”

Sprechakt, Unterklassifikation, Begründende Sprechhandlungen